

## 한미 FTA 논의동향과 전망

신재기\*

### 목 차

- I. 서론
  - II.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한 배경
  - III. FTA에 대한 한국의 강점과 약점
  - IV. FTA에 대한 한국의 대비방안 및 해결책
- 참고문헌  
Abstract

### I. 서론

한미 FTA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FTA의 목표는 자유무역을 통해 역내 국가의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가 수출 증대나 외국인 투자 확대는 물론이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촉발하고, 내수시장 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FTA 협상이 공식화된 이후 호주, EU 등이 한국과의 FTA 추진 의향을 제시한 바와 같이 주요국들을 한국과의 FTA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한미 FTA를 한국의 주요 산업에 대한 시장접근을 확보하고 동북아지역에서의 중국의 정치,

경제적인 영향력 증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에 대해 미국 내 이해당사자가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FTA협상의 타결 여부는 결국 한국 쪽이 얼마나 빨리 국내에서 합의점을 찾는가에 달려 있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방위 FTA 전략을 추구함과 동시에 글로벌 자유무역 움직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기천이과학대학교 의료경영학부(컨벤션산업전공) 교수

[미국의 주요 무역투자장벽]

구분	내용
관세장벽	농산물, 가공식품, 석유, 의류, 신발, 피혁제품, 보석류, 세라믹, 유리, 트럭, 철도차량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고관세 및 관세정점
	정보기술협정 체약국임에도 불구하고, 광섬유, 컴퓨터 모니터용 튜브 등 일부 품목에 관세 유지
통관장벽	일부 낙농제품, 담배 등에 대한 할당관세, 수입허가제도
	과도한 인보이스 서류요건
	물품수속비, 항만관리비 등 수입품에 통관이용료 부과
기술장벽/위생검역/국내규제	식품품 수출시 과도한 등록 요건 등
	정부 외에 협회, 보험사 등 제3자 인증요건
	국제기준과 상이, 국내에서도 주별 기준 상이
	세관 샘플수거 및 검역절차에 장시간 소요
무역규제	외국신약에 대한 FDA 승인 장시간 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역규제조치 발동 일몰재심 등으로 반덤핑조치 연장
서비스	재보험업자는 미국에 담보펀드 예치 의무
	주별 전문직 자격조건이 상이하고 투명성 부족
지재권	외국건조 선박은 직간접 연안거래 제한, 정부소유나 정부지원 받는 화물은 미국적 선박에만 선적가능
	저작인격권의 제한적 인정
	정부, 특허사용시 특허권자에 미통보
정부조달	세계적 추세(최초출원제도)와 달리 최초 발명자 제도 사용
	Buy American법으로 외국기업 입찰참여 직간접 제한
	안보 명목으로 WTO 정부조달협정에 많은 예외(외국기업 배제)
다자합의 미이행	선박 제조시 국산부품 사용비율에 따른 세제혜택 및 보조금 지급
	보호주의적 무역보복조치
기타	패소판정된 판결의 불충분한 이행
	국가안보 개념 불명확하여, 자의적 수입 제한 가능
	수출통제기술 관련 까다롭고 광범위한 법규 경쟁력 취약산업에 대한 국가지원 과다(농업보조금 등)

## II.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한 배경

한미 FTA에 대한 찬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간의 협력 및 상생의 기회로 협

상은 진행되고 있다. 여러 단체들의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FTA를 성공적으로 이루려고 하고 있다. 본 협상은 국가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이며 한단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리라 한미 양국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국가들이 통화(currency)를 통일

시키고 국가간의 장벽을 허물어 하나의 큰 울타리로써 유럽연합을 성사시켰다. 그로인한 막강한 국가간의 연결고리들은 북미 및 아시아 국가들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진다. 유럽이 하나의 연결고리로 된 후 기업들의 경쟁력은 높아졌다. 결국 국가 연합은 경제 연합이라 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화·세계화·글로벌화와 같은 용어들이 일상화된 오늘날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업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에서의 한미 FTA에 대한 관망에 대해서 대부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의 기업 경쟁력이 미국에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견해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가전제품, 선박, 건설, IT(Intelligence Technology) 분야 등 산업의 동맥이라 불릴 수 있는 큰 산업들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건 사실이다. 미국에서 한국의 현대 자동차는 품질(quality)분야에서 30여개의 대표적인 세계 자동차들과의 경쟁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자동차를 산 고객들에게 100일간의 자동차 이용 기간동안의 만족도를 조사한 것으로 현대 자동차에서 가장 내세우는 '품질 경영'이 결국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현대 자동차의 성공신화는 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다.

위의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우물안의 개구리'식의 사고방식을 탈피한 기업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얼마전 '전략가의 사고', '국경없는 세계', '국가의 종말' 등 시사적이면서도 통찰력 있는 저서들을 발표했던 경영 컨설턴트 오마에 겐이치가 글로벌 지식기반 사회의 미래를 예견한 신간을 발표했다. 'The Next

Global Stage'(오마에 겐이치지음, 송재용, 강진구 옮김, 리스미디어)는 세계 주요 국가와 글로벌 일류 기업들의 다양한 변신 노력을 제시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한국기업에 특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는 경쟁력이 곧 기업 발전의 강력한 모티브라는 점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기업 경쟁력은 이제 더이상 국가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통신기술의 진보로 국경을 초월한 비즈니스 아웃소싱이 일반화된 현상은 국가간의 협력을 더욱 가시화 시키고 있다. 예컨대 연구개발(R&D)은 스위스, 설계는 인도, 생산은 중국, 자금조달은 런던, 마케팅과 본사는 미국에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들도 적은 비용으로 제품과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훨씬 더 효과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은 이제 생산과 판매 양면에서 자국 시장을 중심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글로벌 시장을 보고 움직여야 한다.

그러기 위한 하나의 시도가 바로 FTA협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간의 경제 협력의 한 형태가 바로 FTA인 것이다. 서로간의 협력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곧 FTA협상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협상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며 보완된 협상 결과는 각 나라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고찰해보도록 한다.

### Ⅲ. FTA에 대한 한국의 강점과 약점

모든 경쟁에는 기회와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 대응에 따라 우리는 미국시장을 마음껏 누빌 수도 있고, 미국에 국내시장을 몽땅 내주고 뱃속만 빌어먹을 수도 있다. 분명한 사실은, 한미 FTA로 인해 우리는 노령화 및 산성화로 치달는 경제를 재활시킬 9회말 찬스를 얻었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세계무대에 서면 기업, 문화, 예술, 체육 어느 분야에서나 기대 이상 능력을 과시한다. 반면 과도하게 보호막을 친 농업, 교육, 법률, 기타 서비스 분야들은 어김없이 낙후한 형편이다. 어려서부터 치열한 경쟁으로 단련된 한국인에게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경쟁력이 잠자고 있는지 모른다. 밖에 나가 경쟁하면 펄펄 나는 사람들이 국내의 좁은 땅에서는 서로 치고 잡아 뜯으며 힘을 낭비하는 꼴이다.

한국인의 기술력은 현재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다. 두바이에 세계 최대 높이의 건물을 짓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 브랜드인 삼성이다. 이 건물은 160층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건설분야 뿐만이 아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내에서의 권위있는 조사기관에 따르면 한국의 자동차 특히, 현대 자동차에 대한 호평이 잇다르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30여개의 세계 자동차 브랜드들 중에서 품질부분 1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현대자동차에서 '품질 경영'을 앞세운 전략이 세계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현재 안타까운 사실은 국내에서의 어려운 상황들이다. 특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금 특히 상속세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나라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은 그들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1950년 한국 전쟁이후 마땅한 자본 및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부 대기업 보살피주기의 상황은 사실 여러 부정을 낳았다. 그러나 그러한 부정적인 부분과 동시에 긍정적인 부분 즉, 세계적 브랜드의 경쟁에서 현재 당당히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도움이 없이는 오늘날의 눈부신 경제 성장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들이 몇몇 대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기술력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다. 대기업 재벌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부를 쌓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쟁력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라 할 수 있다.

삼성 이견희회장은 일본에서 6개월간 긴 여정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당시 삼성계열사인 에버랜드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승계하기 위해서 주식을 조작하였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어 기업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욕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의 과세 비중이 가히 폭탄이라 할 정도로 과중하다.

예를 들어 한 중소기업 사장이 투고한 내용이 신문에 실려 독자들을 안타깝게 만든 적이 있었다. 자신의 기업이 대략 100억 정도로 측정이 되어 이 기업을 아들에게 승계할 경우 정부에 상속세라는 명분으로 50억을 내야한다. 또한 양도소득세라는 명분으로 20억 정도를 내야한다. 그 결과 이 기업의 사장이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줄 경우 대략 70억 정도를 정부에 세금으로 납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더욱 상황을 어렵

게 만드는 것은 설령 기업을 물려준다 하더라도 공장을 팔아서 세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만일 공장을 팔아 기업의 규모를 작게 만들 경우 기업의 경쟁력은 당연히 상실하게 된다. 기업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면 국가 경쟁력도 자연히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기업의 사장이 자신의 기업을 키우려고 노력할 것인가?

자신이 피땀흘려 이룬 성과를 아들과 대를 이어 계승케 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이며 이는 인간의 기본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세금 제도는 인간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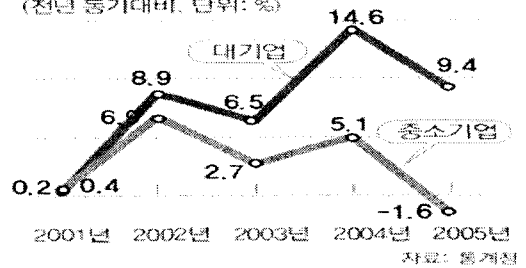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상속세를 폐지시키려 하고 있고 캐나다나 호주에서는 상속세라는 제도 자체가 없다. 이 나라들의 공통된 특징은 세금을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삼성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GDP(Gross Domestic Product)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에서 고용하고 있는 고용인구는 국내외 총 25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 25만명에 연계된 가족 구성원들까지 합치면 100명에 육박하는 숫자를 예상할 수 있다. 하나의 기업이 전체 국민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삼성 이외의 현대, 기아, 대우, SK, 롯데 등 여러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강한 것이다.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들의 상황도 같은 상황이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하나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세계 선진국들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경쟁력 상실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현 모습이다.

FTA가 체결된다면 이를 감당해내야 하는 것은 기업들이다.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에 날개를 달아주는 그리고 날개는 꺾는 것이 바로 정부다. 정경유착이라는 개발도상국들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들은 현 대한민국에서 대입시키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 및 기업의 정서에 큰 차이가 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과거는 정경유착이었으나 현재는 정경유착이 아닌 정치와 경제의 상생을 위해 서로 올바른 방향 그리고 투명한 구조로 도와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만이 세계와 경쟁했을 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무기 즉,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튼튼한 기술력은 배고픈 자들에게 고기를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자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1~10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생산 증가율 추이

(전년 동기대비, 단위: %)



기술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력이다.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이와 석탄 조금 이외에 거의 전무한 천연자원 그리고 강대국들 사이에 끼여있는 지리적 상황에 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단 하나의 자원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는 선비의 정신으로 항상 책임기를 강조해 왔다. 그 결과 오늘날 세계 제1의 교육열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교육열은 다른 나라들의 시선에서 보면 때론 민망하기까지 하다. 기러기 아빠를 만들어가며

세계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유학생들은 분명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의 튼튼한 받침대라 할 수 있다. 물론 10명 가운데 2명 정도 성공한다고는 하지만 무한 경쟁시대에서 경쟁을 좋아하고 경쟁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려는 한국 특유의 국민성은 결국 우리나라의 한 문화로 인식되어진다.

이러한 사람에 대한 투자가 결국 눈부신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고 그것은 기술이라는 꽃을 피우게 되었다. 아시아에서는 4위 세계에서는 12위의 경제 대국으로 자리잡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강력한 성장 모티브는 분명 사람이다.

삼성의 경우를 살펴보자.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은 인재를 키우는 것에 전심 전력을 다했다고 전해진다. 개인의 잠재 가능성을 각 분야에 적절히 배치하여 최상의 효과를 발휘하는데 기업의 핵심을 두었으며 결국 인재를 키우고 뽑는데 전심 전력을 다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제일의 대기업으로 세계에서는 여러 경쟁상대들에게 위협의 존재가 되고 있다.

결국 한국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핵심은 사람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제 1의 무기임에는 틀림없다. 모든 기업들의 운영은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한다. 기획과 컨셉을 잡는 것 또한 사람이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되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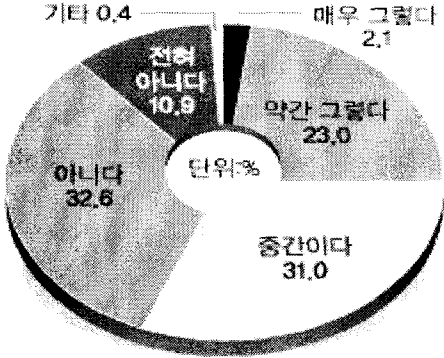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키우기 위한 여러 재반시설에 많은 문제점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대두되어 왔다. 공교육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외국으로 좀 더 나은 환경속에서 자녀들이 교육받기를 원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내신을 공부하고 학원에서는 수능을 공부한다는 학생들의 생각은 일단 대학에 들어가고 보자는 식의 공부를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은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 영어교육을 살펴보자. 단순히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목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수이다.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영어공부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에게도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TOEIC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에 합격하면 그 후로 영어공부는 뒷전이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영어가 아닌 시험 점수를 위한 영어공부는 시간만을 낭비하게 만들고 있다. 시간에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고 또한 이러한 현상은 다음 세대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계승된다는 것이 영어 교육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 협상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와같은 문제점들을 제거하기 위한 서비스 분야의 개선이다. 오직 경쟁만이 퇴보된 부분을 개선할 수 있고 교육, 법률, 금융의 후진국 수준이 현재 상태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바로 한미 FTA라고 정부는 보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있고 그 인재들은 불행하게도 갈 곳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생산적이고 도전적인 일을 하기 보다는 안전한 직업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현재 공무원이 되기를 소망하는 취업 준비생들의 마음속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수한 인재들이 효율적이고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FTA 10년 후 우리의 법률, 교육 및 금융수준을 세계 최첨단으로 끌어올릴지 누가 알겠는가. 능력 있는 국민에게 넓은 시장을 마련해 주는 것은 국가지도자들의 의무다. 한·미 시장의 통합은 단순히 경제활동의 기회만 넓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제도, 관례와 사고방식을 미국, 곧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이다. 법질서와 시장의 합리성을 밥 먹듯 무시하는 우

■ 정부 교육혁신방안의 우리나라 지향 목표 및 가치 반영 정도



■ 교육개혁을 위한 우선 과제(단위:%)



교육인적자원부 2005 통계자료

리의 정치, 경제, 사회주체들은 그들의 행위양식을 알게 모르게 선진세계의 관례에 동화(同化)시키게 될 것이다. 아시아를 벗어나 서양을 닮고자 하는 것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탈아입구(脫亞入歐)를 외친 이래 일본이 소망했던 꿈이다. 그런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먼저 세계표준의 중심에 설 기회가 왔다. 이 기회를 무산시키는 것은 역사적 최악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시장상황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시장 상황은 미국의 시장 상황과 과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충분한 승산을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예상들은 현재 여러 분야에서 그 논리를 증명해 보이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패스트푸드 전문점을 독식하고 있는 미국은 유독 한국에서만만큼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버거킹과 맥도날드가 한국에 들어온지 20년 가까이 되고 있는 현재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서 매장수를 점차 줄여가고 있다.

불과 몇년 전까지 한국인들의 인식에 미국 문화에 대한 동경은 당연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에서 쉽게 인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패스트푸드의 여러 해로운 요소들이 실험들의 통해서 보여졌고 이는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미국 음식에 대한 거리감을 인식시켰다. 지속적인 적자인 기업은 버거킹과 맥도날드 뿐만이 아니다. 세계 최대 마트의 주도권을 가지고 월마트는 결국 백기를 들고 자신의 매장을 우리나라 기업인 신세계에 850억에 넘기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다. 문제는 미국에서 운영하는 운영체계가 한국 시장에서는 쉽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이었다.

세계에서 지속적인 분점과 성공을 당연시 여기던 월마트와 버거킹 그리고 맥도날드는 한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을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분명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경제전문가의 한 분석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을 경우 미국은 40%정도의 한국 수출이 향상되는 반면에 한국은 불과 15% 정도의 수출 향상을 가져올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에서 거의 사정하다시피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긍정적인

요인들 때문이다. 마치 위에서 예를 들은 미국의 기업들에서 우리는 충분한 승산을 미리 확인하였다. 처음 월마트, 버거킹 그리고 맥도널드와 같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 국민들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지나친 호응과 기대로 그들의 사업을 흥하게 해 주었다.

그러나 한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과 더불어 빠르게 변화해 가는 흐름(Trend)에 발맞추어 국민들의 성향도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해 가고 있다. 미국 문화에 한 때는 부정적인 부분까지도 거침없이 받아들였던 국민들은 이제 그때와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미국 기업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패스트푸드는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국민들은 버거킹과 맥도널드를 기피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패스트푸드점인 롯데리아는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다.

가장 큰 성공요인은 사람들의 입맛과 성향을 파악하는 데서 시작이 되었다. 인체에 무해한 자료를 쓰려고 노력했으며 밀이 아닌 쌀로 빵을 만들고 한국인들이 즐겨먹는 전통음식들과의 혼합이 롯데리아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킨 원동력인 것이다. 결국 한국인들의 성향을 간파하는 것이 성공의 최대 요인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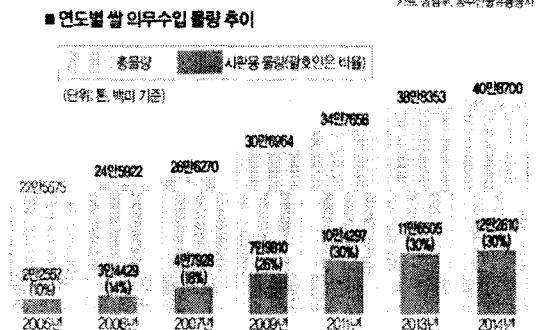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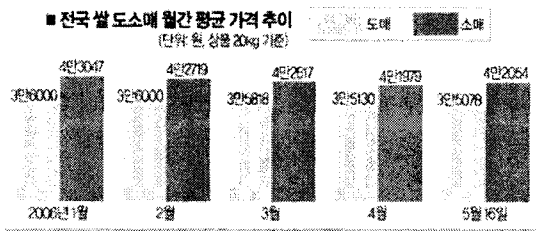
미국에서는 지속적으로 한국 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려 하고 있다. 외국차를 한국에 들여오기 위해서는 각종 세금이 부과됨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미국차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미국은 자동차세를 완전 철폐시키려 하고 있다.

만일 미국 자동차에 붙는 관세가 철폐가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으므로 우리는 거리에서 쉽게 미국차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차든 한국차든 이제 더 이상 어느 것이 절대 우세에 있다고 점칠 수는 없다. 품질이 증명해주고 증명된 품질을 미국 국민들이건

한국 국민들이건 선호하게 된다. 그리고 증명된 품질을 선보이기 위해서 미국 자동차회사는 한국 자동차회사든 서로 경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쟁은 결국 고객들에게 만족을 주게 된다. 한쪽이 흥하게 되면 다른 한쪽이 망하게 된다는 흑백논리가 아닌 한쪽이 강하면 다른 한쪽은 강한 상대에 대한 적절한 벤츠마킹을 할 것이고 이는 자신의 회사들의 경쟁력 향상을 야기시키게 된다. 앞서 설명한 관망은 음식이나 자동차 산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 및 국민들이 미국의 가장 최대의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 바로 농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쌀 시장의 개방은 수많은 농민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다.



그러나 얼마전 미국의 쌀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을 때의 상황은 어떠한가. 미국쌀을 사용하고자 하는 음식점들은 미국쌀을 구입한 후 사용 하루만에 거의 반품을 하였다. 자신들의 음식점



에 오신 손님들에게 도무지 보여드릴 수 없는 저 품질의 미국쌀이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미국은 땅이 넓고 기계로 모든 농업을 주도하고 있다. 기후 또한 변화가 별로 없기에 토양은 비옥하지만 곡식들의 품질은 단연 떨어진다.

#### IV. FTA에 대한 한국의 대비방안 및 해결책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을 경우 한국의 농가에 주는 피해는 실로 막대할 수 있다. 농가의 부채는 점차 쌓여가고 있으며 농가 한 가구당 개인 부채는 3000만원 가까이 되고 있다. 점차 농가의 소득격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정부에서의 대응책이 사실 미비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품질 개선만이 살길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으나 가구당 부채를 3000씩 가지고 있는 농가에게 품질 개선을 원하기 보다는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체계화된 시스템 개선이 먼저 행해져야 할 우선 과제인 것이다.

또한 한국의 교육열에 비해 개발도상국과 비슷한 수준의 교육 시스템은 빗을 저서라도 교육을 시키겠다는 학부모들에게 오히려 외국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단연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꼽는 것이다. 미국의 유명 대학들이 국내로 분교를 설립하였을 경우 질 높은 수업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들의 경쟁을 국내에서만 하는 제 밥그릇 챙기기가 아닌 미국 선진문화와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용시켜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최고 명문 대학의 분교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한국의 명문대학들은 설

곳을 잃을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위협은 각 대학들에게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되고 교육의 질을 한 단계 상승시키게 된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대학들은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이며 경쟁력을 갖춘 대학들은 우수한 고급 인력을 잉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고급 인력은 한국 및 세계 기업들에게 훌륭한 인재로서 인정되어질 수 있으며 결국 국가 경쟁력은 상승하는 시너지 효과를 거두게 된다. 한국의 교육의 우수성은 국내외에서의 인지도 향상을 가져오게 되고 이는 외국 학생들의 한국으로의 유입을 야기시킨다.

현재 일부 몇 개의 대학에서만 시행되는 영어 강의는 점차 확대되어져 가게 될 것이고 영어라는 것이 한국어처럼 이용되어지게 된다.

외국 기업들이나 또는 관광객들이 한국에 대해 가장 어렵게 느끼고 있는 것이 언어장벽이다. 언어 장벽이 사라지게 되고 현 정부에서 경제자유무역지역을 선정해 놓아 외국 기업들에게 충분한 투자의 가치를 보여주게 된다면 이는 국가 성장의 또 다른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사실 한국에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급 인력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의 주된 원인은 제도 장치의 미비뿐만이 아니라 고급 인력들에 대한 사회 보장 및 협력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미국에서 한국인으로서 대학교수를 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꺼려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차이가 본질이 아니다. 그들은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 연구에 대한 지원이 현격히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금융부분에서는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론스타에게 수조원의 단기 이득을 던져주었고 거기서 세금 추징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결국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의

부족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은 금융강국인 미국, 영국, 스위스 등에서의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점이다.

1차산업과 2차산업 그리고 3차산업으로의 전환은 경제 성장과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자동차, 선박, 건설 등의 경제 활동 비중이 점차 서비스 분야로 전환되어지는 것은 경제가 활성화 되고 발전됨에 따라 고급 인력을 양산시키는 시스템으로 되어지고 그러한 고급 인력은 한사람이 열사람이 할 수 있는 노동 생산성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임금은 상승하게 되고 1차 및 2차 산업에서의 생산 라인은 점차 저임금의 풍부한 인력을 가지고 있는 개발도상국으로 이주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 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현재 선진국의 문턱에 다 다른 한국의 상황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 산업의 낙후 속에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불가능하다.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서비스 산업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경쟁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 체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회의 장이 바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인 것이다.

10년전 한국 정부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 했으나 여러 단체들의 반대로 결국 실패하였다. 그리고 10년 후인 지금 다시 그러한 시도를 추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절대적 찬성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업 및 목축업 그리고 영화 산업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다. 심지어 기업의 노동자들도 반대를 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한국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더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80%의 생산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활동 범위를 좁히고 불과 20%에 지나지 않는 부분의 보호를 위한 방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철회라고 부르짖는 것은 모순이 될 수 있다. 무엇이 더 큰 득이되고 해가 될지를 감정적인 대처가 아닌 이성적인 대처로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미국은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미국에 대한 수입이 40% 늘 수 있으며 미국에 대한 수출은 단지 15%의 향상을 가져오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았을 때 어느쪽 방향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다가가는 지름길인지를 모색해야 할 때인 것이다. 그와 동시에 빈곤층에 대한 처우개선은 정부 및 기업단체들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곽수중,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삼성경제연구소, 2006. 5.
- 김준동, 「세계 경제 여건의 변화와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의 의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5.
- 정인교,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KIEP 정책연구 98-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_\_\_\_\_, *FKI ISSUE PAPER contents*, 2006. 5.
- 김영환, 「한, 중, 일 FTA의 경제적효과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2000.
- 이정환 외 4명, 「농업진망 1999」, KREI연구논문. \_\_\_\_\_, 「한국의 FTA 추진전략」, 한국무역협회, 2001.

## Discussion, prospect theory about FTA (America and South Korea)

Jai-Gi Shin\*

### Abstract

Currently there is fast flow of America and South Korea FTA negotiation being issued.

Aim of FTA, by having free trade between two countries to gain their economical benefit.

Few benefits can be expected by Korea joining FTA with America

It will increase export as well as increase in overseas investment and this will lead to booming of services industry.

After America and Korea FTA Discussion being announced around the world, Australia and EU also has interest of doing FTA with South Korea, which mean that America and Korea FTA has effect of bring in the overseas interest of FTA to South Korea.

Expectation of American can be, create the market in South Korea to gain benefit as well as able to check out the economical issue of north east Asia country such as China and Japan.

Since American side has high agreement with the make FTA with South Korea,

South Korea now has to make own decision about this matter.

Since Korean economy highly influence by world trade, to survive from market competition with China and Japan, Korea must involve in Free trade with world.

Key Words: FTA, EU, Create the market

---

\* Professor, Gachon University of Medicine and Science, Division of Medical Business Administration(Convention Business Management)

